

일본의 주요 문화예술 공연장 (나고야, 도쿄, 요코하마)건립 및 운영 사례 조사

-정종석 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I. 출장 개요

- (1) 출장자 : 정종석 연구위원
 - (2) 출장기간 : 2010월 3월 26일 ~ 3월 30일 (4박5일)
 - (3) 출장지역 : 일본(나고야, 도쿄, 요코하마)
 - (4) 출장목적
 - 일본의 주요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및 운영사례 조사(용역과제 '대구공연문화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관련)
 - 대구광역시와 유사한 입지여건*을 보유하고 일본 지역(나고야시, 아이치현)의 공연장 건설채원·운영비 조달방식, 운영체계 등의 현황조사
- * 나고야市는 도쿄와 오사카의 동서 2대 도시권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 제3

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아이치縣(인구 740만명)의 중심 도시
(참고 : 대경권 인구 520만명 - 대구 250만명, 경북 270만명)

- 문화예술과 산업의 융합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요코하마 (Creative City YOKOHAMA)의 문화공연 관련 사업의 추진현황 조사
- 대구 공연예술문화타운의 공간·시설 구상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도쿄 소재 주요 예술공연장의 특성(무대, 객석, 로비, 편의시설, 부속시설, 건축양식 등) 조사

(5) 출장 일정

3월 26일(금)	(인천공항 → 나고야공항), 나고야시청 문화시설계(사토 마사루 계장 면담), 劇團四季(타케히로 우다 본부장 면담)
3월 27일(토)	나고야시민극장, 아이치현예술극장 방문, (나고야 → 도쿄 이동)
3월 28일(일)	도쿄 산토리홀(Suntory Hall), 오페라시티(Opera-city), 新국립극장 방문
3월 29일(월)	요코하마시청 문화진흥과(스가와라 사치코 과장 면담),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홀 방문
3월 30일(화)	도쿄 예술극장 방문, (나리타공항 → 인천공항)

II. 주요 조사결과

1. 나고야市 소재 예술공연시설

(1) 공연시설 건립 현황

○ 나고야시(문화시설계)는 中京大學文化市民會館* 등을 비롯하여 17개**의 공연극장(총객석수 - 약 11,500석)을 소유·관리하고 있음.

- 뮤지컬, 오페라 등 본격적인 공연이 가능한 극장은 객석수 기준으로 中京大學文化市民會館, 名古屋市公會堂 정도임.

* 나고야시가 추쿄대학에 네이밍권을 제공하고, 연간 6천엔의 수수료(시설보수비로 사용)를 확보하고 있음. 즉, 시민회관의 소유 및 관리 주체는 나고야시임.

** 나고야시는 공연극장을 포함하여 연극연습관, 단가회관, 能樂堂, 갤러리 등 총 23개의 문화시설을 소유·관리하고 있음.

<나고야시 소재 공연극장 현황>

극장명	건립연도	시설규모
(1) 名古屋市市民會館 (中京大學文化市民會館)	1972	大홀(2291석), 中홀(1146석), 大연습실(2개), * 2007년 리모델링
(2) 名古屋市公會堂	1930	大홀(1986석), 中홀(780석), 집회실 등
(3) 名古屋市芸術創造センター	1983	640석, 연습실(310㎡, 86㎡(2개)) 등
(4) 名古屋市青少年文化センター	1996	724석, 연습실(236㎡, 70㎡(3개), 25㎡(3개)) 등
(5) 名古屋市中村文化小劇場	1991	350석, 연습실(64㎡) 등
(6) 名古屋市南文化小劇場	1992	394석, 연습실(65㎡) 등
(7) 名古屋市西文化小劇場	1994	346석, 연습실(56㎡) 등
(8) 名古屋市港文化小劇場	1996	350석, 연습실(52㎡) 등
(9) 名古屋市天白文化小劇場	1997	350석, 연습실(58㎡) 등
(10) 名古屋市名東文化小劇場	1998	356석, 연습실(28㎡) 등
(11) 名古屋市守山文化小劇場	1999	400석, 연습실(67㎡) 등
(12) 名古屋市北文化小劇場	2000	237석, 연습실(45㎡) 등
(13) 名古屋市綠文化小劇場	2001	446석, 연습실(64㎡) 등
(14) 名古屋市熱田文化小劇場	2001	352석, 연습실(68㎡) 등
(15) 名古屋市千種文化小劇場	2002	251석, 연습실(72㎡) 등
(16) 名古屋市中川文化小劇場	2002	446석, 연습실(62㎡) 등
(17) 名古屋市東文化小劇場	2001	349석, 연습실(46㎡) 등

- 나고야市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적 공연장은 아이치현예술극장(1992년 건립, 아이치縣 소유시설)임.
 - 아이치현예술극장의 연면적은 18,173㎡이며, 대홀(2층) 2,500석(필요시 1,900석으로 조정 가능), 콘서트홀(4층) 1,800석, 소홀(지하1층) 330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아이치현예술극장은 미술관, 문화정보센터,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이 집적화되어 있는 아이치현예술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하나임.
 - 아이치현예술극장은 나고야시 중심지역(나고야지하철인 東山線과 名城線의 환승역인 사카에역에서 지하연결 통로를 이용하여 바로 접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 주변에 쇼핑센터, NHK나고야방송국 등의 시설과 2~3분 거리에 위치함.
- 민간운영 예술극장으로는 劇團四季(Shiki Theatre Company)*의 뮤지컬 전용극장과 미츠이스미토모해상 시라카와홀 등이 운영중임.
 - 劇團四季의 뮤지컬전용극장(990석 - 1층 729석, 2층 261석)은 나고야지하철인 東山線과 鶴舞線의 환승역인 후시미역(伏見驛)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시라카와홀(Shirakawa Hall)은 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1994년에 개관한 클래식 전용극장으로서 총 693석(1층 421석, 2층 272석) 규모로 운영중이며, 나고야지하철인 東山線과 鶴舞線의 환승역인 후시미역(伏見驛)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2) 공연시설 운영·관리 현황

□ 나고야市 소유 17개 공연시설

- 나고야市가 건립·관리하고 있는 17개 공연시설 모두 나고야시민, 문화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나고야시 자체 재원으로 1990년대와 2000년 초반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었음.

- 나고야시 공연극장 건립과 관련하여 면담결과, 국고지원 없이 나고야시 100% 자체 재원으로 건립한 것으로 확인됨.
- 나고야시는 17개 공연시설에 대해 지정관리기관인 나고야시문화진흥사업단(재단)에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일본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건립한 공연극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체육관 등의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업무를 지정관리기관(민법의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있음.
- 나고야市 소유 공연극장 중 가장 규모가 큰 中京大學文化市民會館(大홀 2291석, 中홀 1146석)의 경우 名城線 가나야마역(金山驛)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접근성은 매우 뛰어나지만, (2007년 리모델링에도 불구하고) 클래식음악, 오페라, 뮤지컬 등의 예술공연을 개최하기에는 객석, 무대, 음향·조명 시설이 크게 미흡한 편임.

□ 아이치현예술극장

- 아이치縣으로부터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정관리업체로 선정된 아이치현 문화진흥재단이 아이치현예술극장을 관리·운영(대관, 시설관리 위주)하고 있으며, 縣 또는 재단 차원의 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자체 기획공연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아이치현에서는 3년 주기로 극단을 모집하여 자체 공연을 기획하고 있음.
- 大홀(2,500석, 5층구조)은 공연기획사, 기업 등에서 공연, 행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콘서트홀(1,800석)은 대중가요 공연, 小홀(330석)은 클래식음악·연극·무용 공연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大홀의 가동률(대관률)은 월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연간 기준으로 95%(객석수 기준의 공연시설 가동률은 집계 자체를 하지 않고 있음)를 상회함.
- 大홀과 콘서트홀에는 클래식음악·오페라 공연이 가능한 음향·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클래식음악·오페라 공연은 小홀에서만 개최 가능함.

□ 劇團四季 뮤지컬 전용극장

- 극단사계(민간기업)는 5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동경,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에 10개의 전용극장*을 보유하고 연간 3,500회 이상의 뮤지컬공연을 개최하고 있음.

* (동경) 自由劇場(500석), 電通東四季劇場(海)(1,216석), 四季劇場(春·秋)(1,255석), 四季劇場(夏)(‘10.7월 오픈예정), (요코하마) キヤノン・キャッツ・シアター, (나고야) 新名古屋ミュージカル劇場(1층 729석, 2층 261석), (쿄토) 京都劇場, (오사카) 大阪四季劇場(1,119석) 등

- 전국적으로 극단사계 소속 직원은 배우, 연출부 스태프, 경영부문 담당자 등 1,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뮤지컬 전문인력 양성과 종합 인큐베이팅을 위해 연면적 11,741㎡ 규모의 사계예술센터(요코하마시 아오바구 소재)를 소유하고 있음.

- 직접 방문한 나고야 사계극장의 경우는 전속 배우(1년단위 계약) 이외에 무대시설관리 4명, 조명 2명, 음향 5명, 무대세팅 6명, 티켓팅 10명 등 뮤지컬 공연에 필요한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나고야 전용극장은 외부에서 볼 때 단층의 독립된 건물로서 앞면 출입부를 제외한 외부벽면은 마치 창고시설을 개조한 듯하고, 내부 객석 역시 고급시설과는 거리가 있으나, 뮤지컬 공연을 위한 음향·조명시설의 경우는 최첨단시설로 설치되어 있음.

* 무대와 객석의 내부구조는 전형적인 부채꼴형 구조이며, 무대와 객석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열 좌석이 배치되어 있음.

- 스타배우에 대한 의존한 흥행 보다는 작품의 품질 향상과 유지를 위한 앙상블 중심, 해외 교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안정적인 수입원과 관객 확보를 위해 기업과의 제휴(일본생명 등)를 통한 고정관객 확보를 추진하고, 해외에서 성공한 뮤지컬을 수입하여 일본인의 정서에 맞게 재구성하여 연출함으로써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있음.

- 관객확보를 위해 일반인 및 여성단체 관객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극

단사계획 회원정보를 통한 철저한 타겟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음.

- 전용극장별로 동일 공연물의 1년 단위 상시공연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나고야 전용극장의 경우 현재 공연중인 “오페라의 유령”이 금년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음. (회당 평균관람객 : 1,000명 정도)

2. 도쿄市 소재 공연시설

※ 도쿄지역 공연시설의 경우는 대구의 신규 공연시설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자료 수집 차원에서 공연시설물의 입지적 여건 및 구조특성 위주로 조사함.

(1) 산토리홀(Suntory Hall)

- 입지적 여건
 - 위치 : 도쿄도 미나토구 아사카사 (록뽀기 인근)
 - 교통접근성 : 지하철(南北線 六本木一丁目역)에서 도보 5분 정도
 - 주변 시설 : 아사히TV 등 오피스빌딩과 연결하고 있는 도심 내 공연장으로, 도보 이동거리 내 인근에는 특징적인 시설물이 거의 없음.
 - 공연장 건물 앞 광장(아크·카라안광장)과 건물 옥상의 아크가든을 관람객 및 주변 오피스빌딩 근무자의 휴식공간으로 제공
- 공연시설 구조·특징
 - 시설규모 : 대홀(2,006석, 1층 858석, 2층 1,148석), 소홀(384석 또는 432석, 리사이틀/실내악 연주회), 리허설실 등(예술의전당의 1/2규모)
 - 1986.10월 개관, 클래식콘서트전용홀(오페라/뮤지컬/발레 공연 불가능)
 - 무대 후방에도 객석이 있는 Wired형 구조(타원 구조)
 - 음향적, 시각적으로 연주자와 관람객이 일체가 되어 상호 실제감이 넘치는 음악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형식
 - 무대를 객석과 좌우 벽·천정이 감싸고 있어 홀 전체가 마치 공명상자와 같은 구조임.
 - 대홀 정면(무대 후방 객석 뒷면)에 세계 최대급의 파이프오르간 설치
- 시사점
 - 클래식콘서트 외 다양한 장르의 공연물 수용이 불가능한 전용극장이라는 점에서 대구 공연시설과 기본컨셉이 상이하나, 공연자와 관람객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무대/객석 설계방식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음.

(2) 오페라시티(Opera-city) 및 新국립극장

○ 입지적 여건

- 위치 : 도쿄도 신주쿠구/시부야구 (신주쿠역에서 지하철 1정거장 거리)
- 교통접근성 : 지하철역(京王新線 初台驛)에서 지하통로로 직접 연결(2분)
- 주변 시설 : NTT東日本본사 등 오피스빌딩군과 연결하고 있는 도심 내 공연장으로, 도보거리 內 특징적인 시설물이 거의 없음.
- 오페라시티는 초고층 오피스빌딩(지상 54층, 지하 4층, 높이 234.4m, 연면적 33,338㎡)* 內 1~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新국립극장(Opera Palace Tokyo)**은 바로 옆에 위치한 독립된 건물(4층)임. (오페라시티가 입주해 있는 오피스빌딩과 新국립극장 사이(폭 20m 정도)의 계단을 통해 지상에서 오페라시티 극장의 정문 입구(2층)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임)

* 초고층 오피스빌딩(민간투자)은 1985년 국제공모를 통해 건축설계가 마련되었고, 1992년에 착공하여 1996년에 완공함. 빌딩 전체는 도쿄 오페라시티 빌딩주식회사와 (재)도쿄오페라시티문화재단과에 의해 관리·운영중임. 참고로 오피스빌딩 입주기업에는 약 1만명이 근무하고 있음.

** 1997.10에 개관하였으며, Canon, TBS, Toyota 등 민간기업의 후원금을 통해 운영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음.

○ 공연시설 구조·특징

【 오페라시티(초고층오피스빌딩 內) 】

- 시설규모 : 콘서트홀(1,632석, 1층 974석, 2층 330석, 3층 302석), 리사이틀홀(286석, 살내약 등), 리허설실(2개) 등
- 1997.10월 개관, 콘서트 전용홀
- 콘서트홀의 천정 높이(27.6m)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적임.
- 홀 정면에 파이프오르간 설치

【 新국립극장 】

- 시설규모 : 오페라극장(1,814석, 4계층 구조(1층 868석, 2층 354석, 3층 292석, 4층 300석), 중극장(1,038석, 2계층 구조), 소극장(340~468석, 지하1층)

- 1997년 개관, 오페라/발레 전용홀
- 오페라극장의 경우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오케스트라피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연 내용에 따라 깊이 조정이 가능한 구조임.
- 무대 구조는 主무대 외, 안쪽과 좌우에 각각 主무대와 같은 크기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4면구조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초대형 오페라 공연이 가능함.

○ 시사점

- 오페라시티는 콘서트전용홀, 신국립극장(오페라극장)은 오페라/발레전용홀이라는 점은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수용하고자 하는 대구 공연시설과는 조성컨셉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초고층 오피스빌딩 안에 공연시설을 배치하고, 또 민간투자를 통해 동 시설물을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요코하마市 소재 공연시설

(1) 공연시설 건립 현황

- 요코하마시에서는 市소관(문화진흥과) 공연시설로 미나토미라이홀, 시민문화회관(칸나이홀) 등을 소유·관리하고 있고, 카나가와홀 등 8개의 공연시설의 경우는 區에서 소유·운영하고 있음.
- 요코하마시에서 뮤지컬, 오페라 등 본격적인 공연이 가능한 극장은 객석수 및 시설(음향, 조명 등) 기준으로 볼 때 미나토미라이홀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

<요코하마市 소재 공연시설 현황>

극장명	건립연도	시설규모	비고
(1) 미나토미라이홀	1998	大홀(2020석), 小홀(440석), 리허설실(212㎡), 연습실, 분장실(16개) (*건축면적 18,688㎡)	市소관
(2) 시민문화회관 칸나이홀	1986	大홀(1102석) (*건축면적 8,968㎡)	
(3) 神奈川區 「かなっくホール」	-	300석, 무대(폭12.5m, 길이8m)	區소관
(4) 港南區 「ひまわりの郷」	-	381석, 연습실(84㎡), 무대(폭12.8m 길이 8.8m)	
(5) 旭區 「サンハート」	-	300석, 음악전용홀(103석) 등	
(6) 磯子區 「杉田劇場」	-	310석, 연습실(52㎡) 등	
(7) 榮區 「リリス」	-	300석, 연습실 2개 등	
(8) 泉區 「テアトルフォンテ」	-	386석, 무대(폭12m, 길이12m, 높이19m)	

- 요코하마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공연시설은 미나토미라이홀(1998년 개관, 당초 부동산회사인 三菱地所(주)에서 건립하여 요코하마시로 운영권을 양도)이며, 동 공연시설은 요코하마 西區에 입지하고 있음.
- 미나토미라이홀의 연면적은 총 18,688㎡의 규모이며, 대홀(2020석), 소홀(440석), 리허설실(212㎡), 연습실, 분장실(16개) 등의 부속시설을 구비하고 있음.

【 대홀의 시설 특성 】

- 전체 연면적 1,944㎡ (세로 54m, 가로 35m, 높이 20m)
 - 무대 면적 290㎡ (세로 19.5~22.5m, 가로 11~13.4m, 높이 17.8m)
 - 총 2,020석 - 1층 1,044석, 2층 682석, 3층 294석
 - 대홀의 시설형태는 장방형과 말굽형의 중간 정도에 해당함.
 - 무대와 3층 객석의 맨 후단부 사이의 거리가 약 34m에 불과하고 또 무대와 객석 사이의 높이 차이가 거의 없어 무대와 객석 간의 일체감을 높이는데 적합한 구조(클래식 공연용 시설구조)
 - 기타 : 무대 후면에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음.
- 미나토미라이홀의 주변(미나토미라이21 지구)에는 요코하마 랜드마크타워(1993년 건립, 70층으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빌딩), 국립요코하마국제회의장/전시홀(우리나라의 코엑스와 유사), 퀸즈스케이요코하마(초대형쇼핑몰), 요코하마코스모월드(테마파크), 요코하마미술관, Sea-Bus/관광선 승강장 등 다양한 기능의 시설물이 입지하고 있음.
- * 미나토미라이21 중앙지구는 1980년대 이후 항만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신도시임. (미나토미라이는 “항구의 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미나토미라이홀은 연접한 퀸즈스케이요코하마(초대형쇼핑몰)와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건축물이나, (퀸즈스케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철역을 통해 접근할 경우) 퀸즈스케이의 1층 중앙통로 끝 부분에 연결되어 있어 건물 내부에서 볼 때 공연시설이 퀸즈스케이의 부속시설인 것처럼 설계되어 있음. 이같은 입지구조는 공연관람 시설물에 대한 일반인의 친밀성

과 접근성을 높이는데 매우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2) 공연시설 운영·관리 현황

- 요코하마시(시민활력추진국 문화진흥과)는 지정관리자인 (재)요코하마시 예술문화진흥재단과의 협약(미나토미라이홀의 경우 (재)요코하마시 예술문화진흥재단/토큐그룹/도쿄무대조명이 참여하는 공동컨소시엄)을 통해 공연시설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재단 위탁대상시설(문화시설) : 요코하마미술과, 미라토미라이홀, 시민문화회관 칸나이홀, 요코하마能樂堂 등 19개 시설

- 나고야시와 마찬가지로 일본 지방자치법에 의거, 요코하마시는 자체 건립한 공연극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체육관 등의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업무를 지정관리기관(민법의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있음.

【 (재)요코하마시 예술문화진흥재단의 운영 현황 】

- 기금 : 2억엔(요코하마시에서 50% 출자)
 - 예산 규모 : 2008년도 수입예산은 50억엔이며 요코하마시로부터의 보조금 14억 2천만엔, 위탁금 21억 6천만엔(문화관련시설 위탁관리), 사업수입 4억 5천만엔, 시설이용요금 5억 2천만엔 등으로 구성되어 전체 수입예산의 91%를 차지
 - 주요 사업 : 예술문화사업의 기획 및 실시, 예술문화활동의 장려 및 육성, 예술문화정보의 수집 및 제공, 예술문화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예술문화시설(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홀 등 19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수탁, 매점 및 주차장의 경영 등
 - 조직 구성 : (이상회) 이사 18명, 감사 2명, 평의원(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 (사무국)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195명(시 파견 13명 포함)으로 구성
- 미나토미라이홀의 경우 지정관리자에 대한 지정기간을 5년단위(현재 체결되어 있는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7.4.1~2012.3.31)로 하여 협약으로 체결하고 있고, 매년 사전에 정해진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지정관리자평가위원회(4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를 통해 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요코하마시는 상기의 업무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지정관리자가 공연시설 운영사업 수입(주로 대관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운영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